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전남 휴일 날씨 24(土) 맑음 10/25℃ 25(日) 구름 조금 10/25℃

단기 4342년 (음력 9월 7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05호 1판 2009년 10월 24일 토요일

남북 고위급 곧 접촉

정상회담 준비 특사 파견할 듯

실무급 비밀회동 확인

남북은 최근 제3국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예비접촉을 가진데 이어 조만간 고위급 수준의 본격적인 접촉을 가질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번 제3국에서의 남북간 접촉이 실무급 수준이었다면 향후 접촉은 사실상 특사 성격의 고위급 수준 접촉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이날 "최근 실무급 접촉에서 장소 등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남북접촉을 진행할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연내 정상회담 개최는 어렵지만 내년에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핵심당국자는 "남북간에 정상회담을 놓고 현격한 시각차가 있는 만큼 만약 성사가 된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고, 보안 유지가 필수적인 사안의 성격상, 외교통상부나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정부부처의 고위 관계자보다는 현 정권의 직을 갖고 있지 않은 비정부 인사가 남북접촉 대표로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우리측 고위급 접촉 대표로는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여권 인사 I, K, L, R씨 등이 거명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의 북한 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남북 당국간 협의가 급진전돼 연내 정상회담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내년에는 성사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번 실무접촉에서 남북간 이견이 노출됐던 정상회담 장소 문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신변안전 문제를 고려, 판문점 등 중립적인 지역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함께 내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원동연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실장이 방중을 전후해 제3국에서 우리 정부의 통일관련 고위 관계자와 만났다고 정보관련 핵심인사가 밝혔다.

남북이 접촉한 제3국은 싱가포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천년의 맛 살아난다 23일 오전 염주체육관 앞 특설무대에서 열린 2009광주김치문화축제에서 박광태 광주시장, 김성훈 추진위원장 등 축제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김치를 직접 담그고 있다. 축제는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염주체육관과 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김치, 천년의 맛!'을 주제로 11월1일까지 열린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김치문화축제 개막

염주체육관서 10일간 일정 돌입

건강식품으로 떠오른 김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계화를 위한 '2009 광주김치문화축제'가 23일 오전 광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개막식을 열고 1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김치, 천년의 맛'을 주제로 열린 이날 개막식에는 박광태 광주시장과 김성훈 광주김치문화축제위원회 위원장, 홍보대사인 진 구, 김정은씨, 앙골라, 칠레 등 주한 외교사절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소리꾼 장사익과 소프라노 김선희의 식전 축하공연에 이어 박광태 광주시장의 개막선언, 김치가 신종플루를 막는다는 내용의 '김치, 세계로 날다'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이어 초청 내빈과 100여명의 광주지역 자원봉사자들은 김치를 담그는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김치 사랑나눔' 행사에 참여했으며 담근 김치는 소외계층에 보낼 예정이다.

개막식에 앞서 진행된 김치 국제심포지엄에서는 한국식품연구원 김영진 박사가 '김치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억제효능'을 발표해 김치와 신종플루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세계김치연구소 홍보관과 세계웰빙발효식품관, 양념·향신료의 비밀관, 세계음식문화관, 팔도김치문화관 등 김치 주제관이 운영된다.

또 김치 문화마당과 김치 콘테스트, 김치마켓, 식객 거리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KIA "V10 오늘 결판"

6차전 2-3 패… 한국시리즈 3승 3패

마지막 한 판에서 최후의 승자를 가린다.

KIA 타이거즈는 23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09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SK 와이번스와의 6차전에서 2-3으로 패해 3승3패를 기록함으로써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관련기사 14면〉

지난 17일 2차전에 이어 벌어진 윤석민과 송은범의 선발 마운드 맞대결에서 SK가 승리하며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양팀 선발은 똑같이 5회까지 마운드를 지켰지만 윤석민이 3실점을 하면서 5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한 송은범에게 승리투수 자리를 내줬다.

득점기회를 살리지 못한 타선의 집중력도 아쉬웠다. KIA는 5회를 제외하고 7회까지 매번 주자가 나갔지만 도루실패와 후속타 불발 등으로 점수를 뽑지 못했다. KIA는 뒤늦게 8회 2사 만루에서 최희섭의 적시타로 2점을 만회하기는 했지만 전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2009 한국시리즈 최종전인 7차전은 24일 오후 2시 잠실구장에서 열린다. 3차전에서 2이닝 4실점으로 무너지며 패전 투수가 됐던 구톰슨이 명예회복을 위해 마운드에 재출격한다. SK는 글로버를 선발 투수로 내세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보와 함께하는 문화행사
자칼엔하이드 · 09년10월 24일~25일 · 광주문화예술회관
김장훈·싸이 완타치 · 09년12월 26일 · 광주월드컵경기장

혁신도시 이전 미적거리던 韓電

"연내 땅구입 가계약이라도 할 것"

김재균의원에 공문 보내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할 한국전력공사가 본사 사옥 부지 매입을 위해 올해 내에 가계약이라도 체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전 측은 지난 22일 국회 지경위 소속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에게 보낸 '혁신도시 내 본사 사옥 부지 매입 계획 제출'이란 공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공식 문건은 김 의원이 지난 12일 한전 국정감사에서 김쌍수 사장에게 "지난해 국감에서 올 연말까지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답해 놓고 이를 미루는 것은 위증"이라고 추궁한데 대한 답변의 성격을 지닌 것이다.

한전 측은 이 공문에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한전 부지 매입과 관련, 매입가격 등에 대해 토지개발사업자(광주도시공사) 측과 현재 부지매입 실무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협상이 지연될 경우 금년 내에 가계약이라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23일 지경부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이 문서가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경부는 산하 이전 기관이 일정대로 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서구문화센터 '자서전 학교' ▶3면 광주 최고 땅값의 비밀 ▶4면 가을병 극복법 ▶5면 Books ▶8·9면 독자와 함께 ▶13면 KS 6차전 상보 ▶14면